

故 유몽안 道례슬링협회장 생전 장학금



지난 18일 제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영원한 레슬링인' 유몽안 전남레슬링협회장(65)이 전남 체육인 후진 양성에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고 유몽안 회장은 제47회 전국 체전(66년)부터 제52회 대회까지 전남대표로 출전, 5회 연속 금메달 획득의 성과를 거두는 등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은퇴 이후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과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 국제 심판으로 활약하는 등 전남 레슬링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김주열 사장 여수 경도단지 안전 점검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25일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골프장 조성 및 숙박시설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상황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점검하는 등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박계각 교수 '자랑스러운 항로표지인'



목포해양대 박계각 교수가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항로표지 발전 세미나 및 제2회 등대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항로표지인'으로 선정됐다. 박 교수는 해양교통 안전과 관련해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기술개발 및 정책수립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청 김장환새 녹조근정훈장



김장환 전남도 방재과 하천 담당이 25일 재난업무 제도 개선 및 재난예방·복구 등의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김 담당은 지난 1979년 11월 공직에 입문한 뒤 지난해부터 전남도 방재업무 맡아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재교육 실시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긴급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재훈 교수 체육과학연구 우수논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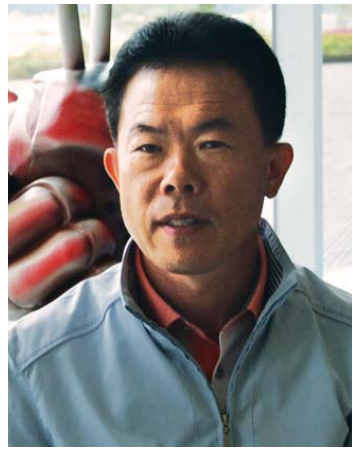
호남대 장재훈(축구학과) 교수가 25일 체육과학연구원(원장 서상훈)으로부터 제10회 체육과학연구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장 교수는 '축구선수의 포지션이 심폐기능과 경기 중 운동 강도, 이동거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이 상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대 융복합기술상에 최흥식 교수



전남대 제 15회 융복합기술상 수상자로 생명과학기술학부 최흥식 교수가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9년간 58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대서성 김 진환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는 최 교수는 5년간 SCI급 연구논문 65여 편을 게재했다.

“자연과 공존하려면 무한한 생명 갯벌 지켜라”



무안생태갯벌센터 임한선 계장 “1000종 생물의 터전 보호해야”

가 지난 17일 문을 열었다.

무안생태갯벌센터 임한선 계장은 “센터는 갯벌의 무한한 생명력을 전하는 곳이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무안 갯벌은 환경부 해운리에서 시작해 삼향면까지 이어지는 147.8만㎢ 규모를 자랑한다. 이 가운데 42만㎢가 지난 2001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첫 번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 1월 탐사르습지로 등록됐다.

특히 복잡한 해안선과 조류의 영향으로 갯벌의 유형이 다양하며, 자연생태의 원시성을 잘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계장은 “무안 갯벌은 영광, 신안의 갯벌 등과 연결돼 모두가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다”며 “과거 되어 가는 우리의 소중한 갯벌을 보호하고, 갯벌의 생태, 환경, 문화적 가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센터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장장 8년의 시간 동안 197억원이 들어간 갯벌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277㎡ 규모로 다목적 영상관과 생태·탐사관, 기획전시실, 카페테리아 등의 전시관이 갖춰져 있다. 주변 5만8600㎡는 야생화단지, 생태연못, 피크닉공원, 염생식물단지, 갯벌 해양 생물 관찰장, 갯벌탐방로, 바다전망대 등이 들어서 있다.

임 계장은 “무안갯벌은 모래, 모래갯벌, 빨갯벌, 자갈 등으로 이루어져 생물들에게 다양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어 저서생물 250여종, 조류 80여종, 염생식물 40여종, 미세조류 130여종, 미생물 등 모두 1000여종에 이르는 생물이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1㎡의 갯벌이라도 그 가치는 엄청난 만큼 무안갯벌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 갯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갯벌생태내인 등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인기자 kki@kwangju.co.kr

“너흰 혼자 아니란다, 희망과 꿈 가지렴”

장애고아 돕기 마라톤경기 대회 캐나다인 라이언씨

캐나다 출신의 한 푸른 눈의 노신사가 장애를 앓는 고아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마라톤 경기 대회를 연다.

주인공은 전주 도 영어학원 원장인 테리 라이언(Terry Lyons, 66)씨. 캐나다 김스턴이 고향인 라이언씨는 1998년 가을 사업에 실패한 뒤 전주로 왔다. 전주 삼천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그는 “이 아이들은 부모 밑에

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고아들은 어떤 생활을 할까”라는 생각이 전주시 내 고아원을 알음알음 알아왔다.

그가 2007년 전주영어원에서 만난 고아가 박에스더(8)양이다. 박양은 선천적으로 항문폐쇄로 고통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박양을 도울까 하는 생각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후원금을 모으기로 했다. 마라톤 연습 중 인대를 다쳐 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라이언씨는 뛰는 대신 걸어서라도 박양을 도왔다. 대회에 참가한 라이언씨는 무릎과 허벅지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계속했지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꺾지 못했다. 라이언씨는 결국 출발점을 떠난 지 6시간 만에 결승점을 밟았다.

이 같은 라이언씨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전북대 의대 교수와 시민, 학원생 등은 십시일반으로 430만원을 모아 박양에게 전달했다. 이들의 도움을 받은 박양은 상태가 호전돼 올해



는 학교에도 진학했다. 용기를 얻은 라이언씨는 또 다른 희망을 위해 오는 28일 오전 5시 전주 삼천 동에서 ‘사랑의 마라톤 경기’를 한다. 라이언씨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애스더가 낙담하지 않고 희망과 꿈을 가지길 바란다”며 “그녀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도움 생각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목포제일정보중·고 개교 50주년

김성복 교장 학교발전기금 1억

평생을 가난한 이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김성복 교장이 최근 개교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모아온 1억원을 학교발전 위해 기부했다. 김 교장은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입대해 한 수녀의 도움으로 팔 절단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계기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전상으로 목포로 돌아와 해병대장이며 치안을 유지하던 그는 당시 젊은 장병들이 이몸조차 한글로 쓸 줄 모르는 것에 충격을 받고 1961년 장병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시작했다. 이후 목포 산정초 교실 세 칸을 빌려 초등학교로 교육을 확대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진학을 포기한 청소년을 모집해 수업



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던 중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아 1986년 학력을 인정 받는 학교가 됐고 1998년 사회교육과정 1년 3학기제 실험학교를 목포 제일정보중·고등학교로 지정받았다. 지금까지 그가 배출한 제자만도 모두 1만3000여명에 이를 정도다.

김 교장은 “젊은 하나만을 믿고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50년이 됐다”며 “제자들이 환경이 어려워도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lee@

“사람간 연결만큼 중요한 건 없어”

래리 킹 서울디지털포럼서

미국의 유명 방송인 래리 킹은 25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연결’만큼 중요한 건 없다”며 “첨단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성으로 연설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인간과 인간의 유대감을 위해서였다”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이 직접 만나 일대일로 연결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킹은 “신기술로 인해 우리가 더욱 발전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맞지만, 세상이 더욱 안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면서 “인간이 커넥팅(연결) 하는 능력보다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 그건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초·중·고 47명에 첫 ‘선플 장학금’



사단법인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사진)는 25일 전국 초·중·고교생 47명에게 첫 ‘선플 장학금’을 지급했다. 선플달기 운동은 인터넷에 격려와 칭찬의 글을 많이 올려 악성댓글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2007년 5월 시작됐고, 배우 이순재와 안성기, 가수 송대관, 방송인 서경석과 김제동 등 유명인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장학금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의 교장이 뽑은 모범 학생에게 주어지며 금액은 고교생이 30만원,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각각 20만원과 15만원이다. 장학금의 재원은 웹사이트(give.sunfull.or.kr)를 통해 모집한 후원인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 입상작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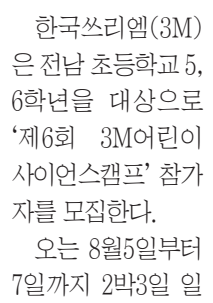
(사)전남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 노성만)는 25일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 4개 봉사단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스타틀러 선언식



호남대 호텔경영학과(학과장 김진강)는 지난 24일 전국 대학 최초로 혁신적인 호텔 경영자였던 스타틀러의 정신을 본받겠다는 선언식을 가졌다. <호남대 제곡>

3M 어린이 사이언스캠프 참가 모집



한국쓰리엠(3M)은 전남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제6회 3M 어린이 사이언스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8월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나주 동신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과학창의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미국 3M 본사 연구원이 직접 진행하는 ‘찾아가는 과학마법사(Visiting Wizard) 교실’도 마련돼 과학과 영어를 함께 접할 수도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6월19일까지 3M 사이언스 캠프 홈페이지(http://www.3m.co.kr/sciencecamp)로 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6월 27일 오후 5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80-033-4114. /김경민기자 kji@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백남술·김순자씨 장남 창법군 양승진(광주동부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장)·박정국씨 장녀 혜영양(28일(토) 한국교회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예식실).
- ▲정원배·박영아씨 동생 원강(청와대 근무)군 윤재영(보성부군수)·정윤심씨 딸 은정양(28일(토) 오후 4시 광주 메리어드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 ▲양성철(기업은행 원효로지점장)·정민욱씨 장남 재준(공익 법무관)군 법희승(아시아해의학협력회의 의장)·신중희씨 장녀 선윤양(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28일(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 1층.
- ▲최희(남도일보 주필)·최의정씨

장남 찬우군 피터 라이머·타타나 라 이머씨 차녀 이리나 라이머양=28일(토) 오후 5시 프라도호텔 2층 다 이아몬드홀.

- ▲이영선(순천시보건소)·김향숙씨 장남 어진(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공공보건건의사)군 김춘식·김옥희씨 장녀 영미양=28일(토) 오후 1시 순천 저전동성당.
- ▲김창술(현대삼호중공업)·김영외씨 장남 성하군 김창숙씨 장녀 이 상미양=28일(토) 오후 1시 20분 목포 웨딩팰리스 1층 아펠리아홀.

동창·동문회

- ▲광주 서중·일고 64회(일고인 체육대회 주관 기수) 5월 월례회=27일(금) 오후 7시 오늘날잡문소(철단수완병원 옆) 062-952-0611, 011-603-5670.

향우회

- ▲재광 진도군 향우회(회장 한기민) 정기총회=28일(토) 오후 3시 30분 광주시 남구 방림초등학교 체육관 017-623-6252.
- ▲재광 영암군 향우회(회장 박주환) 제62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28일(토) 오후 5시 아이리스웨딩홀 062-385-7800.
- ▲재광 나주 향우회(회장 엄금삼) 제 20차 정기총회=28일(토) 오후 3시 광주 갤러리아 웨딩컨벤션 4층 062-227-8880.

중진회

- ▲농성구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구연수) 월례회=28일(토)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트윈빌딩 7층 중회

사무실 062-381-0019.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부음

- ▲김항우(전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진소장)씨 별세 지형(BGC 싱가포르)·지유(국민은행 대리)·윤신(후회대 대리)씨 부친상 박용성(하나은행 과장)·황진신(DHL 싱가포르 이사)씨 빙부상=발인 27일(금) 송정리 열린병원 장례식장 062-941-4446.
- ▲김진복씨 별세 승필·정희·정남·유광씨 부친상=발인 27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 ▲김순임씨 별세 정균열·균선·균혁·균옥·춘자·옥자씨 모친상=발인 27일(금)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 ▲김향란씨 별세 박상일·상인씨

모친상=발인 27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알림

- ▲백정례씨 별세 박형중·진남·진

임·진숙씨 모친상=발인 26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故김성일 님(남/57세)</p> <p>子/子婦: 김 현 / 강희순 女/婿: 김현우, 현정 / 김형관, 현미 / 한성미 •호실101호 •발인:5월 27일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27-4385</p>	<p>故이명은 님(여/62세)</p> <p>子/子婦: 김진영 / 김수진, 진호 女/婿: 김진숙 / 박재호 •호실102호 •발인:5월 26일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27-4386</p>
<p>故이경희 님(남/78세)</p> <p>未亡人: 최양복 子/子婦: 이순재/김경숙, 승준/박민영 女/婿: 이애성/나병호, 영석/김홍중, 현숙/안필립 •호실401호 •발인:5월 27일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27-4383</p>	<p>故이명은 님(여/86세)</p> <p>子/子婦: 김세중/김순희, 세영/조정만 女/婿: 김영희/김재만, 정희/황인화, 정희/윤영일, 현희 •발인:5월 27일(09시00분) •장지:보성결백관 선영 •연락처:250-4407</p>

마음까지 편안함 **孝 金호 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故 최재임 님(여/71세)</p> <p>子/子婦: 이준재/이영숙, 동재/김순덕, 홍재/윤귀례 금재/정혜순, 정재/기영미, 관재/김미리 女/婿: 이승희/박정일 •발인:5월 27일(09시00분) •장지:보성결백관 선영 •연락처:250-4407</p>	<p>故 임계봉 님(여/86세)</p> <p>子/子婦: 김세중/김순희, 세영/조정만 女/婿: 김영희/김재만, 정희/황인화, 정희/윤영일, 현희 •발인:5월 27일(09시00분) •장지:화순읍 수만리 선영 •연락처:250-4409</p>
---	---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